

10여년 세월, 이제 제 2의 도약을 꿈꾼다

수원 양과회

〈글 / 오형석 ohs@mbakery.co.kr〉



▲ 정회원 29명의 수원 양과회. 90년 발족 이후 11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지역 대표적인 모임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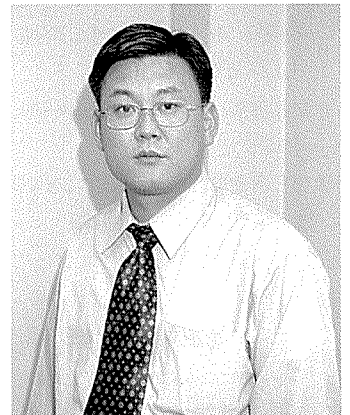
오후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저녁 7시경. 수원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술인들이 한두 명씩 위생복을 갈아입고 각자가 속한 베이커리를 나서고 있었다. 매월 15일. 약 30여명의 수원지역 기술인들이 이 지역 최대 모임인 수원양과회 정기 모임을 갖기 위해 약속장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 지난 3월 15일에 있었던 크림치즈세미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회원들은 하나둘 약속장소에 모여들고 있었다.

90년 10월, 수원 지역 핵심기술인 모임 태동

수원은 최근 들어 발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 지역은 10년 전만해도 베이커리 분야가 그다지 활발한 분위기를 띠지 못했다는 것이 모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원 양과회가 발족한 것이 90년 10월경. 평소 친분 있던 제과인들이 이 지역 업계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몽친’ 것이다. 처음부터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모임은 탄탄한 멤버들로 구성됐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엄기묵 초대회장을 비롯, 현재 대한제과협회 수원시지부의 주축들이 초기에 모임을 이끌었다. 태동기를 거치는 동안 양과회의 회원은 2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정회원 수는 29명이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경기제과제빵학원 상무)씨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다면 상당한 회원확보가 가능했겠지만 수원 양과회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들의 활동 기반이 수원 지역에 국한돼



▲ 김종천 회장. 신구세대의 조화를 통해 재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입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력을 지닌 기술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수원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발족 후 그해 11월 정식 모임의 틀을 갖추어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제는 수원지역에서 가장 큰 모임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모임 회원들의 경력이 최소 10년이라는 점이 지역에서 가지는 이 모임의 비중을 상징한다. 이런 가운데 외형적인 성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나가자는 방안이 최근 모임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활발히 개최...

지역 기술 수준 향상에 밀거름

단순히 친목모임의 성격을 벗어나기 위해 수원 양과회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제과협회 수원시지부 세미나실에서는 양과회가 주최한 크림치즈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며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이 대표적.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원 전부가 참석해 گوش력을 과시하며 기술력 향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보다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 모임의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엄기묵씨는 "기술세미나를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경영세미나 개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의 홍행홍 교장을 초빙해 경영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기술과 경영이론의 접목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혀 다양한 세미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과회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회원들의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의 연수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국내외 경연대회 참가를 유도하는 등 기술인 모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경연대회 수상자들에게는 기술 개발기금 장려금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 회원들을 조별로 나누어 자체 세미나를 실시함으로써 기술력 고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상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자칫 친목모임으로만 흐르기 쉬운 경향을 탈피해 꾸준한 자기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젊은 기술인 영입 ... 신규조화 통해 거듭날 터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 모임은 임원진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원진은 모임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젊은 회원을 확보하는 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해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6명 모두가 젊은 기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런 계획은 상당히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유학이나 연수 등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젊은 세대들로 회원을 보강해 모임의 기술력 제고는 물론 수원지역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9월에 계획하고 있는 자체 기술 세미나에서도 이들 젊은 세대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임원진은 기대하고 있다.

김중천 회장은 "젊은 회원 영입을 통해 모임의 활동을 더욱 활기 있게 가져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외국 유학이나 기술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회원 개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모임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세대의 조화를 통해 모임의 활력을 찾음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수원 양과회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른 모임들이 고아원이나 복지관을 돕는 데 비해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해 낸 것이 장애자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특히, 농아자들에게 베이커리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중천 회장의 진지한 설명이 이 모임의 정체성을 더욱 구체화해주면서 회원 면면을 새롭게 돌아보게 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되면 복지관 내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해 줄 생각입니다. 공장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자립할 길을 모색해주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 3월 15일 있었던 크림치즈 세미나 현장.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황을 이루었다.